

## 뉴질랜드, 채소산업 개황

뉴질랜드는 신선 또는 가공 상태의 소비를 위해 50여종 이상의 채소가 재배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별 고유의 소비에 부응해서 아시아 채소의 종류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채소 생산은 소규모의 자가 생산이라는 특징이 있다. 많은 재배 농가들은 여러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작물별 재배 농가 수와 재배유형은 다양한 특징이 있으며, 토마토와 감자는 재배자의 20%가 전체 생산량의 80%를 차지할 만큼 대규모로 재배되는 작목이다. 뉴질랜드 채소의 생산과 수출동향을 정리한다.

### 1. 채소 생산

2003년 채소류 재배면적은 약 53,000ha, 재배 농가는 3,700호를 상회하고 있다. 면적 기준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채소는 감자이다. 다음이 완두콩, 애호박, 단옥수수, 양파의 순이다. 이러한 작목은 국내시장의 소비도 많을 뿐만 아니라 주된 수출 품목이다<표 1>.

감자의 경우 지난 10년간 ha당 생산량이 10~20% 증가하였고, 양파는 10~15% 증가하였다. 재배 농가들은 이러한 생산성 증가가 새로운 품종 도입과 농기계와 경영기법의 발전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애호박의 ha당 평균 수확량은 1998년 2.5톤에서 2002/3년에는 3.7톤으로 거의 50%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품종육성과 묘상의 개선에서 찾을 수 있다.

표 1 채소류 재배 및 수출 현황, 2003년

단위: 백만 NZ\$

|                     | 재배자수<br>(호) | 재배면적<br>(ha) | 생산량<br>(톤) | 국내소비<br>(2002) | 수출(FOB) |       |
|---------------------|-------------|--------------|------------|----------------|---------|-------|
|                     |             |              |            |                | 신선      | 가공    |
| 아스파라가스              | 201         | 2,015        | 5,300      | 6.5            | 9.1     | 7.2   |
| 콩                   | 216         | 835          | 20,000     | 12.8           | -       | 32.8  |
| 브로컬리, 양배추,<br>컬리플라워 | 277         | 3,746        | 40,000     | 80.3           | 1.3     | -     |
| 가지                  | 142         | 87           | 11,500     | 29.3           | 24.3    | -     |
| 당근                  | 139         | 1,831        | 65,000     | 41.3           | 15.5    | 0.5   |
| 박                   | 244         | 283          | 1,770      | 41.3           | -       | -     |
| 마늘                  | 32          | 268          | 1,427      | 6.5            | 1.5     | -     |
| 고구마                 | 76          | 985          | 17,500     | 33.8           | -       | -     |
| 상추                  | 252         | 1,287        | -          | 39.1           | 1.0     | -     |
| 멜론                  | -           | 387          | -          | -              | 2.5     | -     |
| 버섯                  | 10          | -            | -          | 41.1           | 3.1     | -     |
| 양파                  | 150         | 5,488        | 210,000    | 25.0           | 100.5   | -     |
| 완두콩                 | 532         | 8,273        | 58,000     | 45.0           | -       | 39.5  |
| 감자                  | 321         | 10,611       | 470,000    | 300.0          | 12.4    | 57.0  |
| 호박                  | 125         | 1,033        | 31,000     | 100.0          | -       | -     |
| 시금치/비트              | 103         | 396          | 4,000      | 13.4           | -       | -     |
| 애호박                 | 181         | 6,560        | 95,000     | 9.8            | 67.5    | -     |
| 단옥수수                | 326         | 6,384        | 96,500     | 28.0           | 2.1     | 51.4  |
| 토마토(온실)             | 390         | 167          | 40,000     | 107.7          | 5.0     | -     |
| 토마토(노지)             | 80          | 609          | 50,000     | 5.0            | -       | 2.0   |
| 혼합채소                | 상기 작목의 혼합   |              |            |                |         | 46.7  |
| 건채소                 |             |              |            |                |         | 6.4   |
| 기타                  |             | 2,029        |            |                | 3.1     | 6.1   |
| 계                   | 3,768       | 52,887       | -          | 965.9          | 248.9   | 249.6 |

주 : (1) 기타에는 셀러리, 토란, 파, 양(마), 부추, 순무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재배자수는 작목에 따라 중복되어 있음.

자료 : HortResearch, *New Zealand Horticulture facts&figures 2003, 2004.*

또한 국내 소비가 많은 온실토마토의 경우도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 온실토마토  $m^2$ 당 생산량은 1991년에 25kg에서 2002년에는 42kg으로 60%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배지 및 온실 개량, 온실 내 이산화탄소 강화, 환경제어장치 개선 등 기술적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온실해충의 생물학적 통제는 화학약품 사용을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뉴질랜드의 채소산업은 지난 10년간 생산량이나 생산성 면에서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최근 소비자들의 고품질 안전 식품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부응한 생산 체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통합방제, 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한 수확 전 처리, 등급 구분 및 저장기술의 개선 등이 적극 도입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더 나은 품질을 보장받기 위해 콜드체인 시스템 도입, 수확 후 관리기술 향상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2. 채소 수출

2003년 뉴질랜드의 채소 수출액은 약 5백만 NZ달러로 신선채소와 가공채소가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채소수출은 수익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 규모는 포도주 수출액을 초과하고 있다. 신선채소의 주요 수출 품목은 양파, 애호박, 가지, 당근, 아스파라거스 등이다. 단일 품목으로는 양파가 신선채소 수출액의 40% 이상을 차지하여 뉴질랜드 채소수출을 견인하고 있고, 최근 가지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공으로 많이 수출되는 채소로는 감자, 단옥수수, 완두콩, 혼합채소, 콩 등이다. 이러한 가공채소는 냉동, 통조림, 주스, 인공건조의 형태로 수출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채소수출 시장은 일본, 호주, 영국, 네덜란드, 피지 등 60여 개 국에 이른다. 신선채소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은 일본으로 전체 수출액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가공채소는 전체 수출액의 41%가 호주로 수출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채소수출 시장은 매년 다양해지고 있는데, 채소 수출업자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수출 시장을 잘 견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채소수출은 과일 만큼 큰 비중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채소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수출 시장 또한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채소의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유기농산물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한 채소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양파 위주의 신선채소 수출에서 청정이미지를 살린 다양한 녹색 채소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시장 또한 일본, 호주 외에 아시아 지역 국가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 지역의 기호가 서구 식품 쪽으로 변하고 있어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태 [htpark@krei.re.kr](mailto:htpark@krei.re.kr) 02-3299-4271 한국농촌경제연구원)